

건설동향브리핑

제487호 (2014. 11. 24)

■ 경제 동향

- 10월 월세 가격, 전월 대비 0.2% 하락

■ 정책 · 경영

-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문제점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정책 과제

■ 정보 마당

- 중국의 BIM 동향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직관과 데이터 분석의 하모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0월 월세 가격, 전월 대비 0.2% 하락

- 전세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 방향성 정반대 -

■ 8개 시·도 월세 가격, 전월 대비 0.2% 하락

- 2014년 10월, 전국 8개 시·도의 주택 월세 가격은 97.7p(2012년 6월=100)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고, 지방 광역시는 0.0%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단독이 0.1% 하락하였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모두 0.2%씩 하락함.
-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함.
 - 모든 주택의 유형에서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였고, 단독,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이 모두 0.2%씩 하락함.
- 지방 광역시에서는 단독을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에서 하락함.
 - 아파트가 전월 대비 0.1%, 연립/다세대가 0.2%, 오피스텔이 0.1% 각각 하락하였으며, 단독은 0.0%로 보합세를 보임.

<전월 대비 월세 가격 변동률>

(단위 : %)

	종합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8개 시·도	-0.2	-0.1	-0.2	-0.2	-0.2
수도권	-0.2	-0.2	-0.3	-0.2	-0.2
지방 광역시	0.0	0.0	-0.1	-0.2	-0.1

주 : 8개 시·도는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와 지방 광역시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임.
 자료 : 한국감정원

■ 월세 가격 및 월세 이율, 지속적인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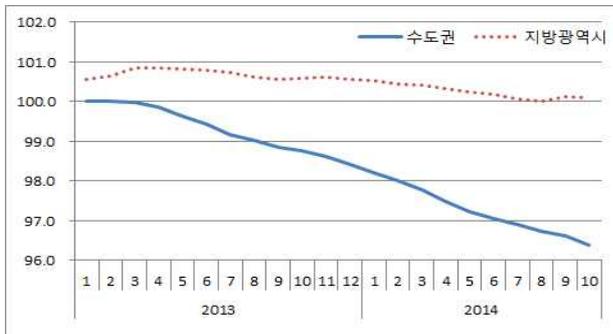
- 2014년 10월, 8개 시·도의 월세 가격 지수는 2012년 11월에 100.2p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6%가 하락한 97.5p로 나타남.
 - 월세 가격 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은 3.7% 하락한 반면, 지방 광역시는 0.3% 하락에 그침.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월세 이율은 전국 8개 시·도의 통계가 작성된 2012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10월에는 0.78% 수준을 보임.
 - 수도권은 2010년 6월 이후 0.19%p 하락한 0.75% 수준이며, 지방 광역시는 2012년 5월 대비 0.05%p 하락한 0.83%의 수준을 보임.

<월세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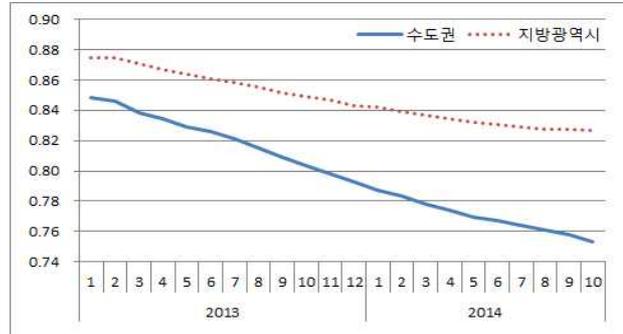
(2012.6=100)



자료 : 한국감정원

<월세 이율 추이>

(단위 : %)



주 : 월세 이율={월세/(전세금-월세 보증금)}×100
자료 : 한국감정원

■ 주택 임차시장 가격 지표인 전세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 방향성 서로 상반돼

- 주택 임차시장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가 서로 상반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혼돈을 초래
 -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수도권 전세 가격 지수는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월세 가격 지수는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일반적으로 재계약시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의 임대료에 임대료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함.
- 월세 지수 산정시, 월세 이율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은 월세 이율의 하락에 따라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월세 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만원, 월세 이율 0.9%에서, 다음 달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만원, 월세 이율 0.8%로 변경되면 완전 월세는 모두 10만원이 되어 월세 지수는 변화가 없게 됨.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문제점¹⁾

- 생활형 인프라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심각, 지역 차원의 적극적 대처 필요 -

■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실상

- 사회적으로 SOC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위축됨.
 -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일부 국가 차원 인프라의 양적 문제는 충족된 것이 사실
 - 전력, 상하수도, 간선도로 등 필수적인 생산 기반 인프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인프라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필수 인프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하며, 주택과 SOC를 포함한 건설 스톡의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는 생활형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수요,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대처 및 질적 고도화 필요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질적 도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

■ 지역 간 건설 스톡의 불균형

- SOC 스톡 측면에서는 도로 연장, 하수도 보급률, 방수 설비²⁾ 등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남.
 - 지역별 면적당 도로 연장은 도 지역에서, 인구당 및 자동차당 도로 연장은 서울,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
 - 하수 처리 시설과 하수관로를 감안한 하수도 설치율에서 서울은 100%인 반면, 충남(48.5%), 전남(48.7%)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방수 설비는 면적 기준으로 전남(34.8%), 부산(18.4%), 경기(17.6%) 등 3개 시·도에 전체의 70%가 집중
- 주택 스톡에 있어서도 주택 보급률 및 인구 천명당 주택 수(302.1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양적 부족이 해소되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크게 나타남.
 - 인구 천명당 주택 수가 가장 높은 전남은 396.5호인 반면, 가장 낮은 서울은 257.8호에

1) 본고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성호·윤호중 의원실이 주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지역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2)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 범람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 시설

불과함(2010년 기준).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127만 6,997가구로, 전체 가구의 7.2%를 차지

■ 생활형 인프라의 미흡

- 생활형 인프라는 생산 기반 인프라와 달리 일상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생활형 인프라의 부족 및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
 - 서울은 사회 복지 시설과 어린이집, 부산은 어린이집과 도서관, 대구는 도시 공원, 생활 체육 시설, 주차장이 타 광역시나 특별시보다 부족

<인구 대비 생활형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 지역>

구분	대상 시설	전국 비교 낮은 지역	
		광역 및 특별시	도
사회 및 보육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서울, 울산	경남
	어린이집	서울, 부산	경북
공원 시설	도시 공원	대구	경기
보건 의료 시설	의료 시설	세종	제주
	상급 의료 시설	인천, 세종	충남
문화 시설	도서관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경남
	등록 공연관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기타 문화 시설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체육 시설	생활 체육 시설	대구	경기
교통 시설	주차장	대구	충남

■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대처 및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건축물 제외 1·2종 기반 시설물 총 1만 9,543개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총 1,860개로 9.5%를 차지(2014년 3월 말 기준)하며, 10년 후에는 2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학교 2만 444개교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학교가 1만 7,658개교(86.4%)이며, 7,445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됨.
 - 상하수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상수도관의 비중은 26.6%, 20년 이상된 하수도관의 비중은 33.9%에 달함. 이로 인해 최근 3년 간 상하수도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싱크홀 사고가 전국에서 70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임.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정책 과제¹⁾

- SOC 확대시 고용 창출에 직접 기여, 중·장기적 비전하에 안정적 투자 유지해야 -

■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필요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도로, 철도, 항공·항만, 산업단지, 수자원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 SOC 예산은 2009년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13~15년에는 축소와 확대가 반복
- SOC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복지 분야는 증액되고 있는 반면, SOC 분야는 경기 상황과 지역의 요구에 따라 당초의 감액 수준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축소 추세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중 SOC 및 복지·보건·노동 분야의 예산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2011~15년	복지	86.4	92.0	97.3	102.8	108.3				5.8
	SOC	24.4	22.6	22.8	22.8	22.8				-1.7
2012~16년	복지		92.6	97.1	102.1	107.2	112.9			5.1
	SOC		23.1	23.9	23.0	22.7	22.7			-0.5
2013~17년	복지			97.4	105.9	113.5	120.3	127.5		7.0
	SOC			24.3	23.3	22.0	20.5	19.2		-5.7
2014~18년	복지				106.4	115.5	122.6	129.9	137.7	6.7
	SOC				23.7	24.4	22.4	20.7	19.1	-5.2

자료 :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참여 용이,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급 등에 우수한 투자 분야임.
 - 건설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13.7(명/10억원)로, 제조업 9.3, 전 산업 평균 12.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12. 5).
 - 건설산업 취업자 중 약 70%가 건설 기능인력으로, 서민들의 건설산업 참여율이 높음.

1) 본고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성호·윤호중 의원실이 주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 SOC 투자가 확대되면 하도급, 자재, 장비업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 핵심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는 120개 사업에 11.2조원 규모의 투자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13개 사업에 4.4조원 규모로 축소
 -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재정 지출 한계로 SOC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핵심 지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임대형(BTL, 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현행은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데, 향후에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전환 필요
 -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신설(Green Field) 사업인데, 향후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성능 개선(Brown Field)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비용 보전(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과 갭 펀드(GAP Fund) 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자주적 투자 자원 확충 필요

- 지자체는 기초 연금, 무상 보육 등 복지비 증가로 재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 여건이 악화돼 핵심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 취약
-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인 국고 지원으로 낙후 지역의 지원 확대 필요
- 조세 담보 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 TIF는 지자체가 미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공공 기반 시설비에 선투자하고, 향후 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공공 자금 조달 방식
 - 미국에서 주로 사용, 도심 또는 낙후 지역 재개발, 신규 산업 단지 개발시 주로 사용
 - TIF 재원의 활용 대상은 주로 교통 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투자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중국의 BIM 동향¹⁾

- BIM의 활용 당위성 인식,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 도입 중 -

■ 중국 BIM의 도입 현황

- 중국의 건설산업은 건설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의지에 따라 생산 체계를 좌우할 수 있음.
- 중국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활용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에서 BIM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설계원들이 BIM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상태임.
 - 중국 정부는 건설 사업에 BIM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종 표준과 라이브러리, 적용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 그러나 BIM 전담 조직과 의사 결정권자들의 의지, 노력과는 별개로 실무 차원에서의 BIM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BIM의 전반적인 적용 수준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BIM은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에 기반하여 진행되는데,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음.

■ 중국의 BIM에 대한 준비

- 1952년에 설립된 중국건축설계연구원은 2004년부터 BIM으로 설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BIM의 적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2004~06년에 건설된 National Stadium(Bird Nest)과 2006~07년에 건설된 Guotai Art Centre에 각각 CATIA와 ArchiCAD가 활용되었음.
- BIM을 도입함에 있어 초기의 실험적 도입을 통하여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BIM 도입 전략의 총괄 기획 과정을 거쳐, 전면적으로 BIM을 도입하는 3단계로 BIM의 도입 과정을 나누고 있음.

1) 본고는 지난 10월 30일, 중국부동산협회가 주최하여 중국 톈진에서 열린 'China Real Estate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단기적인 목표로는 2013~15년까지 일원화된 BIM 응용 표준을 만들고, 모든 설계 단계마다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BIM의 표준적인 설계를 적용하며, 시공에 있어서 10~20%의 분야에 BIM 기술을 사용함.
 - 중기적 목표는 2016~20년에 매년 BIM 기술 적용 항목을 증가시켜 2020년에는 70%의 BIM 기술을 사용하고, 설계 인력의 100%가 BIM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100%의 3D BIM 기술을 적용하고, BIM 기술을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
- 중국건축설계연구원에 BIM설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속에 건축설계실, 구조설계실, MEP설계실 등을 두고 중국건축설계원의 해당 부서들과 연계하여 BIM의 활용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의 BIM 도입 특성 비교

- 한국과 중국은 BIM의 도입 수준에 있어서 간접 체크뿐만 아니라 3D 스캐너 실측 모델링, 분야 간 협력 설계, 4D 공정 시뮬레이션, 에너지 분석, 일조 분석 등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 양국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하여 BIM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발주처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 중국의 경우, 발주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BIM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BIM과 더불어 모듈러 공법을 이용한 시공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 통합 체계로의 발전이 예측됨.
- 한국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표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BIM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한국 고유의 발주 및 계약 체계로 인하여 설계·시공 간의 통합 업무에 취약성이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아닌 혁신의 필요성이 있음.

김우영(연구위원 · beladomo@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제1차 국가 계약 네트워크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11. 18	대한건설협회	● '통일 시대 건설 분야 협력 방안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통일 인프라 구축과 자원 조달 방안
	국회 CM포럼	● '정책 토론회 : 건설 관리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토론자로 참여
11. 20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주최,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방향 수립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민자 사업 재무 모델 해석 및 응용 실무 과정」 교육생 모집

- 일정 : 2014. 12. 10(수)~11(목), 16시간
-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370,000/인

※ 본 연구원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임.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됨(우선 지원 대상 기준, 30% 내외). 단, 대규모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 「2014년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이에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중임.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직관과 데이터 분석의 하모니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2년 세계 경제포럼은 빅데이터를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여는 주요 기술로 지목했다. 미국은 빅데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3.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공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데이터로부터 보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검색 기록을 통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이미 파악했다. 아마존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는 범죄 예측 시스템 도입 후 범죄율이 20%나 줄었다고 하니 데이터가 가진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빅데이터는 산업에서의 활용 가치도 매우 크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감축은 물론 입찰이나 분양 판매에서도 보다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실 시공의 예방과 현장 안전성 제고, 빌딩 에너지 효율 증대, 도시 교통량 감축, 토지 이용 추세 분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사람들이 미래 예측을 위해 데이터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결정의 순간에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직관’의 대항마로 ‘데이터’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직관에 의존한 판단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직관 역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재료이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사실에 기반한 수학적 사고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학적 사고는 직관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 발생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다.

최근 건설기업 기획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수준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기업 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가 절실하다는 응답률은 매우 높았다. 직관과 경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건설산업의 특징이 있지만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직관과 데이터 분석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난 직관력과 명철한 데이터 분석력으로 무장해 세계를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한다. <서울경제, 2014. 10. 6>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